여름방학 대비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할 감염병(아시아)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 '25. 7. 25.(금)>

◆ 자료원 출처
- [질병감시전략담당관] 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 WHO-Disease outbreak news/Item/Npah virus infection-Bangladesh(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outbreak-news/item/2024-DON508)
- 2025년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관리지침
- 2025년도 바이러스성 모기매개감염병 관리지침
- 2024년도 HIV/AIDS 관리지침
- 2025년 주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발생 현황(29주)
- [보도참고자료] '지카바이러스 2년만에 첫 환자 발생' 위험국가 방문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 주의 당부('25. 6. 4.)
- [주필리핀대사관] 정보마당/해외여행안전정보/필리핀 내 HIV 감염 급증 관련 유의 안내

□ 아시아

◆ **(니파바이러스)** '25. 7. 인도 케랄라주에서 니파바이러스 감염 2명 발생 사례 보고, 이 중 1명 사망으로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21일간의 격리 지침 적용 중이며 지역 발열 모니터링 시행하는 등 지역사회 차원 예방활동 활발히 전개

◆ **(지카바이러스)** 세계적으로 '25년 12,660명 발생했으며('25. 5. 기준) 국민 선호지인 아시아 지역 태국, 인도, 싱가포르에도 발생

◆ **(백일해)** '25년 27주 일본 백일해 주간 발생 3,578명으로 '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일본 보건당국은 백일해 백신 적기 접종과 영유아 보호자, 임산부, 취학 전 및 학령기 아동의 추가 접종 및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강조

◆ **(HIV/AIDS)** 필리핀에서 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 중으로 '25년 1분기 신규 환자 5,101명 보고되어 전년 동기간 대비 50% 증가해 필리핀 보건당국은 상황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공중보건비상사태 선포 추진, 진단검사와 치료 접근성 강화 및 전국적 캠페인 실시 필요성을 강조함

☞ **국내 니파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아직 없으나 주요 발생 지역인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 방문 계획이 있는 경우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발생지역에서 박쥐, 돼지 등 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오염된 과일이나 대추야자 수액을 섭취하지 않는 등 여행 시 주의사항 준수가 필요합니다.**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예방백신 및 치료제가 없으므로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위험 국가에서 모기물림 후 2주 이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 **백일해는 국내의 경우 '24년 하반기 유행보다 감소했지만 학령기 아동 대상 백신접종과 백일해 유행지역 방문 시 손위생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적극 권고합니다.**

☞ **HIV/AIDS 감염 예방을 위해 해외여행 시 위험한 성 접촉을 피하고 귀국 후 감염이 의심되면 감염 의심일로부터 4주 후에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아시아

□ 니파바이러스

○ **(주의 국가)**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필리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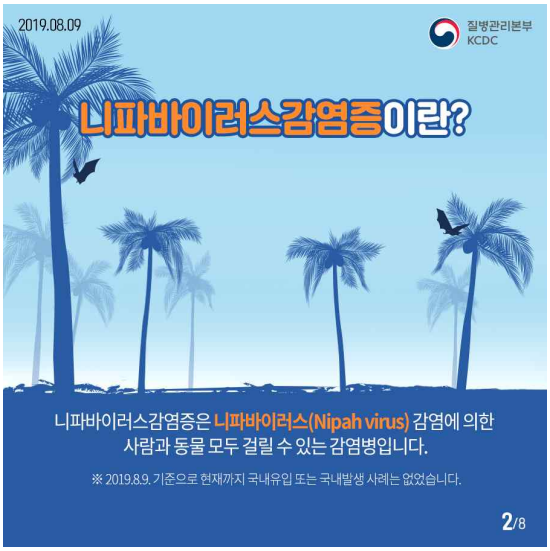
- **(인도)** '01~'24년 환자 104명 발생, 이 중 76명 사망 보고
- **(방글라데시)** '01~'24년 환자 341명 발생, 이 중 242명 사망 보고('24. 2 기준)
- **(국내현황)** 국내 발생사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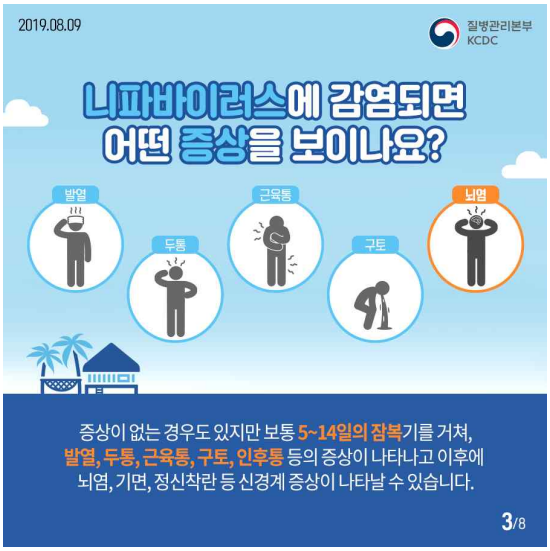
○ **(질병개요)**

- **(정의)**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 감염에 의한 인수공통 감염병
- **(질병분류)** **법정감염병 제1급 지정 예정**
- **(병원체)** 파라믹소바이러스과*(Paramyxiciridae)* 헤니파바이러스*(Henipavirus)*속
- **(감염경로)** ▲박쥐, 돼지 등 감염된 동물이나 체액(혈액, 소변, 타액 등)과의 직접적인 접촉 ▲감염된 동물의 체액(감염된 박쥐에 의해 오염된 야자 수액 또는 과일 등)으로 오염된 식품 섭취 ▲니파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 또는 체액(호흡기 비말, 소변, 혈액 등)과 접촉
- **(주요증상)**
  - 일반적으로 열, 두통,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 감염 후반 일부 뇌부종이나 뇌염
- **(치료)** 증상 발생 시 대증요법

○ **(예방 및 관리)** 국내 상용화된 인체감염 백신 없으므로 개인위생 수칙 준수

- **(일반 예방 수칙)**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여행 중)** ▲박쥐 서식 지역 피하기 ▲(의심)환자와 접촉 금지
- **(동물주의)** 발생지역에서 박쥐, 돼지 등 동물과 접촉 피하기
- **(식품주의)** 오염된 과일이나 대추야자 수액을 섭취하지 않기


2019.08.09
질병관리본부 KCDC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 감염에 의한
사람과 동물 모두 걸릴 수 있는 감염병입니다.
※ 2019.8.9. 기준으로 현재까지 국내유입 또는 국내발생 사례는 없었습니다.
2/8


2019.08.09
질병관리본부 KCDC
니파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발열
두통
근육통
구토
뇌염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근육통, 구토,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에
뇌염, 기면, 정신착란 등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8


2019.08.09
질병관리본부 KCDC
니파바이러스에
어떻게 감염 되나요?
과일박쥐
돼지
대추야자나무 수액 섭취
감염된 동물 직접 접촉
환자와의 직접 접촉
바이러스에 감염된 과일박쥐, 돼지와의 접촉,
과일박쥐의 침 또는 소변에 오염된 대추야자나무 수액 섭취,
환자와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4/8


2019.08.09
질병관리본부 KCDC
니파바이러스감염병의
치료법은 무엇인가요?
감염 진단
대증치료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현재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고
비교적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이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감염이 확인되면 증상 완화를 위한 대증치료를 하게 됩니다.
6/8


2019.08.09
질병관리본부 KCDC
여행 전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발생국가와 예방수칙을 확인하세요
여행 중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세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평상 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주의
발생지역에서 과일박쥐, 돼지 등 동물 접촉 금지
발생지역에서 대추야자 수액 섭취 금지
(의심)환자와 접촉 금지
7/8


2019.08.09
질병관리본부 KCDC
1339
귀국 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면서
증상을 알려주세요.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다면 ☎1339로 문의 바랍니다.
귀국 시
검역
귀국 후
1339
8/8

□ 지카바이러스

○ **(주의 국가)** 태국, 인도, 싱가포르 등

- **(태국)** '23년~'25년 5월 1,106명 발생
- **(인도)** '23년~'25년 5월 151명 발생
- **(국내현황)** 최근 5년간('20~'24년) 주로 동남아시아 방문 후 감염
  * ('20년) 1명→('21년) 0명→('22년) 3명→('23년) 2명→('24년) 0명

○ **(질병개요)**

- **(정의)**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에 의한 질환
- **(질병분류) 법정감염병 제3급**
- **(병원체)**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 family *Flaviviridae* genus *Flavivirus*
- **(감염경로)**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를 통해 전파 ▲(기타전파) 성접촉, 수직감염, 수혈감염 가능
- **(주요증상)**
  - 반점구진성 발진과 함께 다음 증상 중 2개 이상 증상 동반(발열, 비화농성결막염/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관절주의 부종 등)
  - 대부분 경미하게 진행, 감염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불현성 감염자가 80%
  - 신경학적 합병증(길랭-바레 증후군) 등의 중증 합병증 발생 가능하나 드물게 보고됨
  - 임신부가 감염되었을 경우 신생아 소두증과 연관이 있음이 보고됨
- **(치료)** 통증이나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대증치료

○ **(예방 및 관리)** 국내 상용화된 인체감염 백신 없으므로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

- **(여행 전)**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거나 출산 이후로 연기하도록 권고 ▲(여행을 연기할 수 없으면) 여행 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여행 시 일반적 주의사항을 상담받고 태아의 건강 상태 확인
- **(여행 예방 수칙)** ▲모기 주 활동 장소 및 시간대의 활동 자제 ▲모기 기피제는 노출된 피부나 옷에 엷게 바르고 눈, 입, 상처에 사용하지 말 것 ▲필요시 살충제 사용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긴 소매 상의와 긴 바지 착용 ▲캠핑이나 야외 활동 시 모기장 이용 또는 방충망 설치

- **(여행 후)** ▲(귀국 후 2주 이내)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 알리기 ▲헌혈 보류기간(4주) 동안 헌혈 금지 ▲남녀 모두 3개월간 임신 연기 및 콘돔 사용 등 성 접촉 피하기



□ 백일해

○ **(주의 국가)** 일본

- **(일본)** '25년(27주 기준) 43,728명 발생해 전년 총 발생의(4,054명) 10배 초과
- **(국내현황)** '25년 발생 수는 감소하다 전월 대비 증가(7. 14. 기준)

  * (1월) 2,282명→(2월) 899명→(3월) 382명→(4월) 331명→(5월) 327명→(6월) 363명

○ **(질병개요)**

- **(정의)**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
- **(질병분류) 법정감염병 제2급**
- **(병원체)**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
- **(감염경로)** 환자 또는 보균자의 비말 감염에 의해 전파, 전염성이 강함
- **(주요증상)** 급성 발열성 발진성 감염병

카타르기	- 콧물, 눈물, 경한 기침 등의 상기도 감염 증상이 1~2주간 나타남. 백일해균의 증식이 가장 왕성하여 전염성이 제일 높은 시기
발작기	- 발작성 기침 있으며, whooping cough, 기침 후 구토, 무호흡 등 증상이 나타남 - 최근 확진 환자들은 전형적인 백일해 임상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가벼운 기침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음
회복기	- 발작성 기침의 횟수나 정도가 호전 - 회복은 천천히 진행되고 2~3주 후 기침은 소실되지만 비발작성 기침은 수주간 지속될 수 있음

- **(치료)** 항생제 치료로 증상 완화 시킬수도 있으나 주로 이차적인 전파 억제 목적

○ **(예방 및 관리)**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 수칙 준수

- **(소아)** 생후 2, 4, 6, 15~18개월, 4~6세에 DTaP 백신으로 접종 후 11~12세에 Tdap 백신으로 추가접종, 이후 Td 또는 Tdap 백신으로 10년마다 추가접종 실시
- **(성인)** 과거접종력이 없는 경우 최소 4주 간격을 두고 2회 접종하고, 2차 접종 후 6~12개월 후에 Td 또는 Tdap 백신으로 총 3회 접종(3회 중 1회는 Tdap 백신 사용)
- **(여행 전)**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는 적기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 ▲고위험군(면역저하자, 중등증이상 만성폐쇄성 폐질환자)이나 영유아 돌보미, 의료종사자 등 백신접종 권고

- **(여행 중)** 사람 많은 곳에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 **(예방접종기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irhp/index.jsp) 검색 가능

- 국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찾기→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원하는 시/도, 시/군/구 선택→ 접종가능 백신(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선택



2024.4.29. 질병관리청

훕(Whoop)소리가 나는
발작성 기침이라면...

백일해를 의심해 보세요!

1/7

2024.4.29. 질병관리청

백일해란?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백일해는 어떻게 전파되나요?

-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할 때 **비말을 통해 전파가 가능합니다.**
- **유증상 감염자의 침, 콧물** 등이 묻은 물건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전파**가 가능해요!

2/7

2024.4.29. 질병관리청

백일해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백일해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7~10일** (최소 4일~ 최장 21일)입니다.
증상은 다양하지만 **크게 3가지 단계**로 진행되고 발열은 심하지 않습니다.

카타르기(1~2주)
- 일반적 감기와 비슷하고 전염력이 가장 높습니다.
- 콧물, 재채기, 가벼운 기침이지만 점점 심해집니다.

경해기(4주 이상)
- 매우 심한 기침, 발작성 기침으로 밤에 더 흔하고, 하루 평균 15회 이상 발생합니다.
- 숨을 들이쉴 때 높은 소리의 휩(Whoop)소리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 소아와 아기는 기침을 하는 동안 얼굴이 파래질 수 있고, 구토를 하거나 탈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기침 발작 사이엔 아파 보이진 않습니다.

회복기(2~3주)
- 발작성 기침이 서서히 줄면서 2~3주 내 사라집니다

! 백일해 면역력이 없는 가족 내 접촉자에서는 **70~100% 전파 가능!**

3/7

2024.4.29. 질병관리청

백일해 감염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백일해에 걸리면 학교, 어린이집 등 **전파 차단**을 위해 전염기간 동안 **등교, 등원*을 중지하고 집에서 격리**합니다.
  * **등교, 등원 중지기간** :
  - (적정 항생제 복용 시) 투여 후 5일까지 격리
  - (치료받지 않는 경우) 기침 멈출 때까지 최소 3주 이상 격리
- **백일해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후 **예방적 항생제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4/7

2024.4.29. 질병관리청

백일해 예방법은?

예방접종
접종일정에 맞춘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접종	1차 DTaP	2차 DTaP	3차 DTaP
	생후 2개월	생후 4개월	생후 6개월
추가접종	4차 DTaP	5차 DTaP	6차 Tdap
	생후 15~18개월	4~6세	11~12세

5/7

2024.4.29. 질병관리청

백일해 예방법은?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하루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기침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6/7

□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

○ **(주의 국가)** 필리핀

- **(필리핀)** '25년 1분기 HIV/AIDS 환자 5,101명 보고되어 전년 동기간(3,401명) 대비 50% 증가했으며 일 평균 HIV/AIDS 확진자는 57명으로 전년 동기간(37명) 대비 55% 증가

- **(국내현황)** 5년간 주별 평균 15명 발생('25. 7. 19. 기준)

  * ('20년) 816명→('21년) 770명→('22년) 824명→('23년) 749명→('24년) 714명

○ **(질병개요)**

- **(정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감염에 의한 질환
- **(질병분류) 법정감염병 제3급**
- **(병원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 **(감염경로)** ▲성관계 ▲오염된 혈액이나 혈액제제의 노출 ▲수직감염 ▲오염된 주사기 공동사용
- **(주요증상)**

급성 감염기	- 감염 후 3주 내지 4주 이내에 비특이적인 발열, 인후통, 기침, 근육통, 뇌수막염 증상, 발진 등의 감기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30% 내지 50% 정도에서 나타나고 대부분 1주에서 6주 후에 저절로 호전됨
무증상기	- 급성 감염기 증상이 사라진 후 8년 내지 10년간 증상은 없으나 면역기능은 계속 떨어지며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체내에서 계속 증식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 증후군 및 초기 증상기	- 무증상기가 지난 후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이행되기 전에 느끼는 전구증상으로는 발열, 오한 및 설사, 체중감소, 불면증 등의 증상과 아구창, 구강백반, 칸디다 질염, 골반내 감염, 피부질환 등이 동반

- **(치료)** ▲항바이러스제의 조기 치료 권장 ▲기회감염 등 발생 시 해당 질병에 따른 치료 시행

○ **(예방 및 관리)** 안전한 성생활 및 감염 의심 시 신속검사와 치료 필요

- **(여행 중)** ▲위험한(PrEP 등 관련약물 복용 및 불특정 다수) 성접촉 피하기 ▲콘돔의 적절한 사용 장려 ▲콘돔 사용이 100% 예방할 수 있지 않은 점 알기 ▲문신, 침술, 피어싱 등 관련 위생이 철저히 관리되지 않은 감염 위험이 있는 시설 회피 ▲면도기, 칫솔, 주사기 등 개인 위생용품은 타인과 공유 금지

- **(검사)** ▲귀국 후 감염 의심 시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을 것을

권고 ▲검사는 감염 의심일로부터 4주 후에 받도록 권장



HIV/AIDS

HIV란?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 HIV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HIV 감염인'

AIDS란?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 HIV 감염으로 인한 면역세포 파괴로 면역체계가 손상되어 각종 감염증, 암 등 질환이 나타나는 상태
- 이러한 질환이 진행된 사람은 '에이즈 환자'

HIV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감염인과의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



감염인이 사용한
주사기 공동사용



수직감염
(감염된 여성의 임신, 출산, 모유 수유)



감염된
혈액 수혈

보건소에서 무료·익명 검사가 가능합니다

- ☑ 감염 의심일로부터 4주 정도 지난 후 검사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 검사는 1차 선별검사와 2차 확인 검사로 진행됩니다.

매독

매독이란?

매독균(*Treponema pallidum*)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성기 및 전신 질환

매독은 어떻게 감염되나요?

- ☑ 매독 환자와의 **성접촉**
- ☑ 매독 환자와의 **주사기 공동사용**
- ☑ **수직감염**(감염된 여성의 임신, 출산)
- ☑ 매독에 감염된 **혈액 수혈**

매독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 ☑ **성기 부위에 무통성 궤양**
- ☑ **피부 발진, 열, 두통, 권태감**

매독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 ☑ 혈액을 채취하여 항체검출검사로 진단하거나 **피부병변조직** 등을 통해 **유전자검출검사**로 진단합니다.

매독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 ☑ 페니실린 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검사받아야 할까요?

- ☑ 가까운 보건소와 병의원(피부과, 비뇨의학과 등)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HIV 및 성매개감염병은 어떻게 예방하나요?



익명·즉석만남
성파트너 NO!



잦은 성파트너
변경 NO!



성매매
성접촉 NO!



콘돔없이
성관계 NO!